

경찰관 50여명 배치 해놓고...이재명 피습 왜 못 막았나

정치인은 선거철만 경호...평상시 교통·안전 관리 집중 대중 접촉 잦아 경호 어렵고 사전 위험 인물 감지 못해 경찰 전담 인력 없어...경호 업무 강화·지침 개정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현장에 경찰관 50여명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막지 못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가 2일 오전 10시 20분께 부산 강서경찰서 소속 기동대 1개 제대 23명과 형사 등 직원 26명을 포함해 총 50여명이 근무중이었다. 이들은 이 대표를 밀착·전담마크 하는 경호 인력 이 아니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평상시에는 당 대표를 포함해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경호팀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엄밀하게 보면 이 대표는 밀착경호 대상이 아니었다. 정치인에 대한 밀착 경호가 이뤄지는 경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뿐이다. 일반적으로 경호는 정부 요인, 국내의 주요 인사 등 피경호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다. 이들에게 직접·간접으로 가해지려는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위협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피경호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전형적인 경찰상 위험방지 활동의 하나다.

결국 경호업무는 근접 경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교통·경비·생활안전·수사 등 일반경찰활동의 종합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도 이 대표가 승격당할 당시 경찰관들이 주변에서 안전 관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용의자가 '이재명 지지'란 글자가 쓰인 파란 종이 왕관을 쓰고 이 대표 지지자 모임을 뜻하는 '짬짬 자봉단' 머리띠까지 두르고 있던 탓에 사전에 위험 인물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정계인사 등 중요 인물에 대한 경호 기준을 더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피경호자(정치인)들이 지지자와 소통을 위해 경호 요청을 최소화하는 추세지만 근접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경호실에서 근무했던 성준혁 중부대 경찰경호학과 교수는 "유력 여·야당의 정치인의 경호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당 대표의 경우 비선호 지역의 공개행사에서는 근접거리 경호에 대한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하다. 경호담당자 뿐 아니라 피경호인이 안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경찰 경호 업무의 강화와 관련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응급 대처식으로 수행하는 경호업무는 전문성이 떨어진다 지적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호요원 선발→교육·훈련·재교육→배치→인사관리(경과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찰의 일부 경호 업무를 민간으로 위탁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본연의 경호 임무는 국내 주요 요인으로 한정돼야 한

다"면서 "중요 인사라고 모두 경찰이 경호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민간경호업체에 위탁을 하는 방안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경호 임무에 대해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대통령경호실법 등에 규정을 받고 운영하고 있다. 정확한 지침이나 규칙은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다. 경찰경호의 대상은 중요도에 따라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국내 대상자는 갑(甲)·을(乙)·병(丙)호로 나뉜다. 갑호는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된 자와 그 가족, 퇴임 후 7년 이내인 전직 대통령 등으로서 주로 대통령경호실이 전담수행하고 있다. 을호는 퇴임 후 7년이 경과한 전직 대통령, 대통령 선거후보자,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등으로 경찰이 경호한다. 병호는 갑호, 을호 이외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사가 대상자다. /정병호 기자 jusbh@



세월호 참사 10년...“진상규명 하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10주년을 맞아 2일 오후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목포 신항 세월호 선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과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사회참사위원회 권고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일 광주 방문...경찰 비상

이재명 대표 피습에 경호 강화 나서 북부경찰 5·18묘지 인력 2배 배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광주 방문 때문에 광주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일대에서 피습을 당한 가운데 경찰청 본청에서 경호 강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이다. 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4일 광주를 방문하는 한 위원장의 동선에 있는 일선 경찰이 경호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4일 오전 10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운정동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이어 오전 11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광주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경찰은 한 위원장의 동선을 점검하고 경호대책 마련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은 아직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식 경호 요청은 없었지만, '요인 보호' 수준으로 경호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관할 북부경찰은 평소 국립 5·18민주묘지 주요 인사 참배시에 배치하는 경호 인력의 2배 이상을 현장에 배치 할 방침이다. 서부경찰도 3일 오전께 경호 인력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지만 평소 배치되는 경찰력보다 증원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경호 계획은 공개할 수 없다”며 “본청의 경호 강화 지시에 따라 광주 방문 예정인 한 위원장에 대한 경호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2일 이 대표 피습 사건을 계기로 당대표 등 주요 인사 대상 “전담보호팀”을 구성해 조기 가동하기로 했다. 우발상황에 대비하는 ‘주요인사 전담보호팀’은 기동대 1~3개 부대(60~180여명) 규모로 구성되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주요 공개 일정이 있을 때 정당 측과 협의해 피경호대상의 보호 활동을 하게 되며, 24시간 밀착해 전담하는 경호 인력과는 다르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90억원대 전세사기 60대 부부 입건 조사

광주서부경찰, 딸 공인중개사도

60대 부부가 9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임대사업자 60대 남성 A씨와 배우자 60대 B씨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 부부의 딸이자 공인중개사인 30대 여성 C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시 서

구·광산구의 오피스텔 134세대의 전세 보증금 96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부모가 전세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세입자들에게 가족 관계를 숨기고 계약을 유도한 혐의다. 이들 부부는 각각 1인 회사를 설립해 임대사업자 법인을 세우고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오피스텔 200여세대를 구입했다. 이후 전세 사업을 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

지 못한 채 지난해 8월 파산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다른 주택을 매매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들 부부는 경찰조사에서 “대출 금리가 올라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경찰은 추가수사로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새해 첫날부터 음주운전 현직 경찰관 입건

광주경찰이 새해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광주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A경위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경위는 이날 새벽 1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신용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가 신호 대기중에 잠이 들자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면허 정지 수치(혈중알코올 농도 0.059%)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A경위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이성혁(문학평론가)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경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청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청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청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